개요

Ⅰ 창업법인 데이터

- 데이터 : ㈜한국기업데이터 월별 창업법인 수 자료
- 산업분류 : 도소매업, 비즈니스서비스업, 금융업, IT융합, 콘텐츠, 녹색·디자인 및 패션·바이오메디컬, 도심제조업, 관광·MICE, 숙박 및 음식점업, 그 외 기타산업의 총 10개 산업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5대 권역(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강동, 강남, 서초, 송파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마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종로, 중구, 용산

- 법인창업 동향은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 수 자료를 이용한 서울연구원의 연구 자료로 국가승인통계가 아님
- 서울 법인창업 동향(㈜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동향의 신설법인 수와 차이가 있음
  - 이 연구 자료의 창업법인 수는 해당 월 서울에 창업하는 모든 법인을 포함하는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표하는 법인 수는 영리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계 기준이 상이함
  - 최근 2년(2017~2018년) 간 공표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기업데이터 수치가 월 평균 100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기업데이터가 각각 비영리법인의 포함 여부, 본사와 지사 구분, 사업체의 입지 구분 기준(법원 등기소 위치 또는 사업체 주소), 데이터 추출 시점 등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료 활용 및 해석 시 두 기관의 수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연도	기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7	중소벤처기업부	2,514	2,570	2,859	2,544	2,425	2,859	2,543	2,597	2,632	1,920	2,791	2,646	30,900
	한국기업데이터	2,624	2,670	2,994	2,656	2,516	2,983	2,636	2,676	2,739	2,001	2,880	2,758	32,133
2018	중소벤처기업부	3,082	2,372	2,919	2,862	2,682	2,823	2,763	2,790	2,070	2,690	2,757	2,545	32,355
	한국기업데이터	3,189	2,453	3,018	2,970	2,788	2,909	2,880	2,873	2,134	2,816	2,867	2,652	33,550

※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GPS X, Y좌표 기준의 입지 구분에 따라 예전 자료와의 차이, 기존의 업종부여 작업에서 누락된 데이터의 추가 등을 반영하여 예전의 2017~2018년한국기업데이터의 서울 창업법인 수를 보정하고, 2019년 분석결과에 반영함

Ⅰ 서울 법인창업지수

- 서울시 소재 법인 창업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지수로 산업별 창업법인 수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매월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창업법인 수의 변화를 측정
- 데이터 : ㈜한국기업데이터 창업법인 수
- 가중치 : 산업별 창업법인 수 대비 전체 창업법인 수(2015년 연평균, ㈜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산업분류 및 공간적 범위 : 창업법인 데이터와 동일
- 기여도 : 종합지수증감률 = Σi기여도i ※ 기여도i=(△개별지수i / △종합지수) × 종합지수증감률 , i는 각 산업을 의미
  지수를 구성하는 산업 각 부분이 전체 지수의 증감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줌

[서울 법인 창업지수의 한계]

-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서울의 창업 증감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인사업체의 창업만 다루고 자영업자들의 개인사업체 창업은 다루지 못하고 있어 개인사업체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창업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2016년 창업한 서울 내 사업체 중 개인사업체의 창업이 78%, 법인사업체의 창업은 21%로 법인 창업만으로는 전체 창업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님

- 다만 창업법인의 종사자 수는 전체 창업 사업체 종사자의 38%에 달하고 있어 법인사업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개인사업체보다 뛰어남. 또한, 기존 법인을 포함한 서울시 법인사업체의 종사자가 서울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67% 규모임을 감안하면 법인 창업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고용 측면에서 중요하며, 법인창업에 의한 고용 창출은 전체 고용의 향배를 알려주는 선행지표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음
-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계정요인의 영향을 고려하여 원계열 지수의 전년 동월비 증감을 중심으로 분석함. 그러나 명절이 있는 달은 설·추석 명절의 월간 이동에 의한 효과가 원계열 지수의 분석결과에 포함되므로 원계열 지수와 함께 전체 지수에 대한 계절조정치도 참고지표로 제공